종단소식

조계종

신흥사 57명에 장학금 전달

속초 신흥사(주지 도후) 신흥장학회는 6일 원각사에서 97년 하반기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철스님(중앙승가대 4년)을 비롯 학인스님 5명, 대학생 17명, 중·고생 35명 등 57명에게 3천5백여만원이 전달됐다.

봉선·용주사 합동 주지연수

남양주 봉선사(주지 밀운)와 수원 용주사(주지 정락)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간 화성 신흥사에서 본말사 합동 주지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조계종지와 교육이념, 성보문화재 관리 및 보존실태와 방안, 불사를 위한 법률 및 사찰종무행정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 효과적인 설법론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태고종

경기 종무원장 월봉스님

경기남부종무원은 8월 29일 수원 흥국사에서 사찰 주지회의를 열고 새 종무원장에 최월봉스님(흥국사 주지·사진)을 선출했다.

월봉스님은 인사말에서 "경기남부교구의 재도약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종무위원 이하 분원 사찰 스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종무원장 선출은 그동안 종무원장을 맡아왔던 김법장스님(수원 대련사 주지)이 일신상의 문제로 사임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서울 중서부 종무원 결성

서울 종로구, 중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지역 사찰 대표자들은 8월 28일 종무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중서부종무원을 결성키로 결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스님들은 종무원과 인접해 있는 6개 지역을 통괄한 종무원 신설은 종단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빠른 시일내에 종무원사를 마련하고 종무원장을 선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은평·서대문분원, 마포·중구·용산분원, 종로분원 등 중서부종무원을 3개분원으로 나누고 분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천태종

삼광사 추석맞이 이웃돕기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는 6일 법화당 4층 법회실에서 추석맞이 불우이웃 돕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삼광사는 관내거주 무연고노인, 소년소녀가장 2백여명을 초청해 다과회를 베풀었으며, 성금도 전달했다.

보문종

신도증 발급 신도관리

총무원(원장 혜일)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신도관리를 위해 신도등록 및 신도증 발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무원은 지난달 말 '신도등록 및 신도증 발급업무 시행에 따른 협조문'을 전국 본·말사에 발송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신도등록 및 신도증 발급은 재적사찰을 갖는 소속감을 부여하는 한편 당해사찰의 신도관리와 사찰신도회 조직 및 종단위상 강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일승종

심불정사 부처님 점안식

대구 심불정사(주지 지홍)는 8월31일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번 점안식은 그동안 모시고 있던 불상의 훼손이 심해짐에 따라 새로 조성한데 따른 것이다.

총화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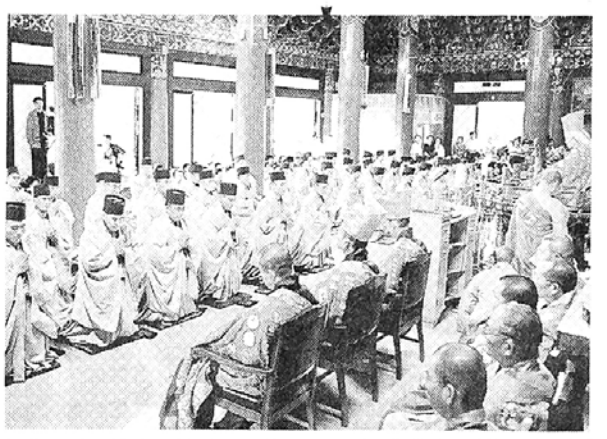
만경사 천불전 상량식

충남 수신 만경사(주지 청해)는 2일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불전 상량식을 봉행했다〈사진〉. 60평규모의 천불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주심포 양식에 팔작지붕으로 오는 98년 2월 완공될 예정이다.

알림 본지 20면 증면과 함께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속세번뇌 사르오리다"

천태종 4년만에 새스님 51명 수계



◇천태종 수계 의식 가운데 고향예배가 있고, 수계자 가족이 참석하는 등 엄숙하지만 정감어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8월29일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설법보전에서는 4년만에 수계식이 열렸다. 집을 떠나 입산한지 3년에서 8년. 행자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정식으로 스님이 된다는 설레임과 속세와의 인연을 끊는다는 회한이 51명 수계자의 눈동자를 정지시키고 있다.

구족계를 받기 위한 행자교육과정은 3년. 낮에는 울력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불교교리전반과 사미율의, 천태학 등을 배우던 혹독했던 학습과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친다.

대표행자의 종정스님에 대한 큰 향과 수계자 전체의 3사7증사에 대한 삼정례가 이어진다.

삼정례 후 수계자들은 부처님을 뒤로 하고 법당 밖을 향해 돌아섰다. 고향예배. 언제까지나 마음의 고향일것만 같았던 부모님과 조상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기 위해서다. 선대조상에게 2배, 부모에게 1배. 세속의 인연을 끊고 부처님 제자가 됨을 알린다. 이를 지켜보던 수계자 가족들의 눈가엔 눈물이 고였다.

'부처님께 귀의하고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으로 삼보전에 삼배를 올린 후 연비의식이 치러졌다.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을 공양하겠다는 발원이 가슴에 새겨진다.

계를 주고 받는 수계. "불살생… 지키겠습니까" "예, 지키겠습니다" 십선계 하나하나를 지키겠느냐고 묻는 종정스님의 말에 대한 대답이 울려퍼진다. 파르라니 깎은 머리의 사미 25명과 검은 머리를 뒤로 감아 올린 사미니 26명이 새로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한사람 한사람 종정스님으로부터 받은 장삼을 입고 가사를 걸친다. 수계증과 도첩도 받았다. 팔뚝에 새겨진 연비자국과 장삼, 가사가 어깨를 누른다. 10년간의 사미(니)과정을 거쳐 구족계를 받을때까지 지내온 날보다 앞으로의 날들이 더욱 고행임을 알기 때문이다. 〈구인사=한명우 기자〉

北으로 들어가는 옥수수 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지선스님)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에 지정기탁한 옥수수 2천톤 가운데 1차분 3백톤이 집행위원장 효림스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2일 중국 도문시를 출발, 남양으로 들어갔다. 불교추진위 유지원사무국장은 "중국 현지의 옥수수값 폭등으로 가격조절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나머지 물량인 옥수수 1천7백톤은 11일 기차편을 통해 남양으로 전달된다"고 밝혔다.

스리랑카에 한의대 건립 세계 고승초청 기원법회

한·스불교교류우의회, 24일

한스불교문화교류우의회(회장 종운·해원사 주지)는 24일 오후7시 올림픽공원내 올림픽프라자에서 '스리랑카 한국한의대 건립을 위한 세계불교고승초청 기원대법회'를 봉행한다.

각 종단의 종정 원로 주지스님과 전문인 등 약80여명으로 스리랑카 한국한의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종운)를 구성한 同회는 오는 11월23일 스리랑카 현지 착공식에 앞서 기원법회를 연다.

이날 법회는 교계를 비롯 사회각계 지도자와 중국 일본 등 16개국 스님및 스리랑카 장관 국회의원등 각국 불교지도자들이 참석한다. 한편 스리랑카 한국한의대 건립부지는 최근 4만여평을 더 추가 기증받아 총 5만여평의 부지에 설립될 예정이다.

횡성중금리 석탑 이전

횡성 갑천면 중금리 3층석탑(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9호)이 횡성 다목적댐 건설로 인해 구방리 망향의 동산으로 이전된다.

불교방송 경영·제작 공백 '심화'

범대위 영담스님 고발 특위 경영진 퇴진요구

공금횡령 성금유용등 불교방송 사건이 범불교대책위(위원장 지원스님)의 영담스님 고발, 조계종 방송특위(위원장 정대스님)의 종하·영담스님의 이사직사퇴와 경영진 퇴진결의 등으로 다시 혼미한 국면에 빠졌다. 〈4일 현재〉

뿐만 아니라 불교방송은 보도국장, 기술국장 공석에 이어 최근 편성제작국장이 18일자로 사표를 제출,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관리 공백이 생겨날 것으로 우려돼 설상가상의 실정이다. 또 사장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관리 허술과 책임있는 경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있다.

◇불교방송 기구조직표

범대위는 3일 영담스님을 공금횡령 혐의로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같은날 열린 특위는 △영담스님의 2억유용과 관련 비슷한 유형의 유용이나 횡령에 대한 97년도 재단사무국 세부 감사실시 △불교방송 재단이사회 이사전원에 대한 책임문책과 조계종 파견이사 용퇴권고 △前 이사장과 現 이사장 직무대행의 이사직 사퇴 촉구 및 불교방송 현 경영진의 즉각 용퇴 등 6개항을 결의했다.

성문사 청소년 수련원 민원 해결 공사 재개

천태종 원주 성문사(주지 장송재)가 추진중인 청소년 수련의 집 건설공사가 본격화된다.

96년 9월 원주시 행구동에 2천3백여평의 부지를 마련, 기공식을 가졌던 청소년 수련의 집은 행구2통 주민들이 식수 및 생활용수 고갈과 수련원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저수지 토사유입 등을 내세워 반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성문사측은 △급수관을 매설해 물을 공급하고 △농수로 보수 △저수지 토사유입시 준설작업 △2통 주민자녀에게 연 50만원의 장학금 지급 등의 조건으로 주민들과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사에 활기를 띨 수 있게 됐다.

동국대 '참사람 교육'

50명에 어학·컴퓨터 등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는 1일 정각원에서 '동국 참사람 인증'을 위한 취업 특화교육 신고식을 가졌다.

모의토익과 개별면접을 거쳐 1차 선발된 50명의 3학년 학생들은 이날 신고식을 시작으로 오는 98년 7월까지 인성교육을 비롯해 토익, 컴퓨터, 어학연수 등의 교육과정 이수 후 국가에서 실시하는 어학시험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따야만 인증서를 받게 된다.

서산대사 유물관 기공

11월완공…옥천사도 상량

전남 해남 대둔사(주지 천운)와 경남 고성의 옥천사(주지 지성)는 9월1일과 8월31일 각각 유물전시관 상량식을 봉행했다.

금년 11월 완공여정인 대둔사 서산대사 유물전시관〈사진 위〉은

각 50평 규모의 서산관과 초의관이 건립된다. 이날 행사에는 천운스님을 비롯해 범각(도갑사 주지), 일장(축성암 주지)스님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옥천사 유물전시관〈사진 아래〉은 지하1층 지상2층의 총180평 규모로 올 연말에 준공돼 임자명반자(보물 제495호)를 비롯 고서 탱화 등 유물 3백여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상량식에는 지성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마음 팔자 운명은 없다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맡겨놓고 살면 공한 나도 발견할걸, 집안도 편안 할걸, 내육신도 건강할걸, 주변도 다 화목해질걸 여러모로 좋다. 그러므로 믿고 맡기면 팔자운명 타령할 일도 없게 된다.

법천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바라밀쑥뜸기를, 더욱 편리하고 효과있게 개선시켜, 쑥뜸효능이, 2배로 상승된,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 보급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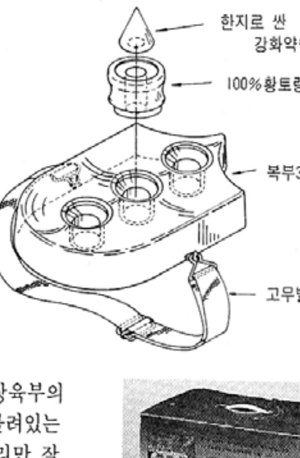
건강장수쑥뜸을 뜨게되면 유난히 많은 쑥연기가 나옵니다. 이 연기는 창문을 열어놓거나 환풍기를 설치해도 잘빠지지 않고 가구나 옷등에 냄새가 깊이 배어, 쑥뜸을 계속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하며 겨울철에는 추워서 창문도 못열고 하다보니 쑥연기로 인해 쑥뜸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 들을 위해 이번에 새로 개발된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는 쑥타는 흰 연기를 완전히 밖으로 배출시켜 쑥뜸을 지속적으로 뜨시는 분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 :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선택구입사양) : ₩60,000

현대인의 건강長壽쑥뜸기

◎ 하루 40분씩만 복부의 단전, 배꼽, 중완 3개요혈에 장수쑥뜸을 뜨십시오 . . . 평생건강을 보증합니다.

"뜨거운 고통과 큰 흉터를 남기는, "재래식 쑥뜸 요법의 세대교체 ⇒ "현대인의 만병(萬病)을 다스리는, 건강장수 쑥뜸기" 열풍!



※ 고통없는 뜨거움, 상쾌함이 느껴지는 열자극을 복부전체에 주면서, 주로 쑥의 영묘한 약성분을 배꼽과 단전, 중완의 피부세포를 통하여 몸 속에 집중적으로 투입시켜 체질개선과 함께 질병을 치유시키는 방법.

● 이런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1) 사소한 질병이든 불치병, 난치병등 큰 병이든 몸에 한가지 병(病)이라도 있어 그로인해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2) 지금 자신의 배를 만져 보십시오. 배가 차다고 느끼십니까?
3)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갖고 계십니까?

◎ 인체에 병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로 오장육부의 이상현상에서 오기 때문에, 이들 장기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배 주위의 3개 요혈 배꼽, 단전, 중완의 3개 혈자리만 잘 다스리면 왠만한 질병은 거의 다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보급가격 : ₩120,000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제조원 : 성지관음회(부설: 바라밀건강연구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0342)706-3060

지역문의 서울 : 종로·서대문구 (02)747-7033 송파구 (02)417-8922 노원구 (02)942-6430 경북 : 울산 남구 (0522)74-7536 울주구 (0522)85-1284 포항 (0562)75-1560 경남 : 마산 (0551)23-9016 부산 : 연제구(보문포교원) (051)864-3740 부산진구 (051)867-2926 경기 : 광주 (0347)64-3172 용인 (0335)36-4294 충북 : 제천 (0443)46-3023 충남 : 예산 (0458)33-3208 보령 (0452)33-1336 전북 : 익산 (0653)856-8659 강원도 : 강릉 (0391)645-2117